

트렌드 & 스타일

우중충한 날엔 더 화사하게



무릎을 덮는 길이 의 크롭트 팬츠는 바지가 찢기 쉬운 장마철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사진 제공=비키>

무더위에 앞서 찾아오는 장마철에는 눅눅한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옷 입기도 고역이다. 우산을 써도 옷이 젖는 경우가 많고 흠뻑물이 튀어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씨(SI) 박난실 디자인 실장은 "장마철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는 게 좋으며 습기를 잘 흡수하지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폴 울 소재의 의상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실장과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 구희경 실장 도음말로 장마철 코디법에 대해 알아본다.

바지는 짧게 상의는 밝게...소재는 잘 마르는 폴 울을 남성은 심플한 셔츠에 화려한 넥타이로 포인트를

■ 밝고 산뜻한 색상을 선택하라

장마철에는 우중충한 날씨를 감안, 화사하고 산뜻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는 게 좋다.

빗물이나 흠뻑물에 더럽혀지기 쉬운 하의는 다소 짙은 색상을, 상의는 상큼한 옐로우나 레몬, 시원한 느낌을 주는 라이트 블루를 함께 코디하면 경쾌하고 깔끔해 보인다.

옷감 소재는 비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폴 울이 좋다. 니트류는 폴 울 혼방을 비롯해 레이온과 나일론이 혼방된 것을 선택하면 가늘가늘한 느낌이 라비 오는 날에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다.

단 마 같은 천연섬유는 비에 젖으면 늘어지고 주름도 쉽게 가 피하는 게 좋고 실리는 젖으면 무거워지고 잘 마르지도 않는다. 섬유 자체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장마철에는 착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 크롭트 팬츠, H라인 스커트를 활용하라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에는 길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해 바지가 젖기 쉽다. 이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릎을 덮는 길이의 크롭트 팬츠와 반바지다. 또 짐에 있는 긴 청바지를 접어서 물업 스타일로 만들어 입을 것도 좋다.

스커트나 원피스도 장마철에 입으면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하지만 시폰 소재의 하늘하늘한 스커트는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젖어 몸에 달라 붙을 수 있어 장마철엔 피하는 게 좋다.

대신 A라인이나 H라인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된다. 원피스에 카디건을 입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유행하는 짧은 반바지에 구멍이 송송 뚫린 메시 소재의 점퍼를 매치 시켜 입으면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 소품을 활용하라

장마철에는 간단한 소품 하나라도 스타일이 살아날 수 있다.

계속되는 비 때문에 우중충한 기분이 든다면 화려하고 재미있는 무늬의 우산으로 포인트를 줘보자.

또 최근에는 장마철을 겨냥해 화사한 레인부츠와 레인코트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도전해 보자.



남성들은 블랙 등 기본 색깔의 하의에 화사한 색깔의 셔츠를 입어주면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난다. <사진 제공=지이크>

■ 남성-정장과 캐주얼을 믹스하라

남성들의 경우 정장적인 정장을 입기보다는 정장과 캐주얼을 적당히 믹스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하의는 블랙이나 네비 등 기본 정장 바지를 입어주고 상의는 옐로우, 핑크, 그린 등의 밝은 셔츠를 입어주는 게 기본이다. 밝은색의 셔츠가 부담스럽다면 심플한 셔츠에 화려한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캐주얼 차림으로는 9부 통바지나 허리에 밴드가 들어간 스트림 팬츠를 입어보자.

하의는 브라운, 네비 등 선택하고 상의는 요즘 유행하는 캐주얼 셔츠나 핑크, 아쿠아블루 색상의 V넥 셔츠를 입어주면 좋다.

신발은 딱딱한 정장 구두보다 가벼운 아웃도어 스타일의 스니커즈나 빗물이 들어가지도 염려 없는 샌들을 신어주는 게 기본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까고... 녹이고... 뽑고... 태우고...
여름미인 '털과의 전쟁'



노출의 계절, 빼어난 각선미는 사람의 힘으로 당장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매끈한 피부에 속절없이 자리잡은 털은 '욕의 티다'. 그래서 털 때문에 고민 중인 여성들에게 여름은 제도(除毛)의 계절이기도 하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미지에피부과 정진욱(40) 원장으로부터 올바른 제도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까고=통증 없이 털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 방법이다. 면도를 하기 전 대상 부위에 충분히 비누 거품 또는 세이빙 로션 등을 발라 피부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종아리 부위는 크게 상관없지만, 겨드랑이털을 면도할 때는 주름이 없도록 피부를 당긴 후에 면도한다.

▲녹이고=제도 크림을 피부 위에 바른 뒤 닦아내면 털이 없어지는 방식이다. 면도보다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지만 화학 약품이 때문에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피부 각질 속의 케라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뽑고=왁스를 바른 뒤 굳어 피부에 딱 달라붙었을 때 떼어내 털을 뽑아버린다.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모낭 주위를 다칠 수 있고, 상처가 남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0만원대에 출시되는 제모기 역시 뽑는 원리, 뽑는 제도 방법을 사용할 때 역시 부위를 따뜻한 물로 불려주는 것이 좋다.

▲태우고=털이 있는 부위에 레이저를 쏘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모근을 파괴하는 원리다. 다른 제도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단점이지만 영구 제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피부가 까맣거나 태닝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색소 침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

<사진 제공=옥시세라켄비저>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02)972-8004, 8000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상가건물 매매
·종량부 대지 75평 3층건물 2억 1,700만 21억
·금남로 문화관광빌 대문인 5층 145평 900만 2억

한일지도판매(주)
(02)529-1409
2007 최신 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 기록된 부분

효성공인중개사
(02)521-6024
대지매매 (교회, 원, 투룸부지)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1,300평 3면 도로접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목장,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T.(062)385-9994, 233-2222
상무지구 주택공사
一生 최대의 소망! 당사는 名品 을 취급합니다.